

# 파격적 변신 거듭해온 디자인계의 혁신가

《디자인, 세상을 비추는 거울》 펴낸 박인석씨

하루가 다르게 유행이 바뀌는 세상이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이제 고어가 돼버렸고, 가장 시대변화에 민감한 디자인계에선 변화의 주기가 1개월도 길 정도다. 이렇듯 속도가 미덕인 시대에 변화의 최일선에 있으면서도 그 자신은 우직하게 느낌의 행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디자인계의 '마당발' 박인석씨(48, (주)이노디자인 한국지사 부사장)가 그렇다. 그래서일까. 최근 그가 펴낸 《디자인, 세상을 비추는 거울》은 그의 이름을 달고 나온 첫 책이다. 그의 이력에 비춰보면 이미 여러권의 책을 냈을 법도 한데 말이다. 어쩌면 '느림'은 그의 태생적인 기질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느린 행보에는 남다른 철학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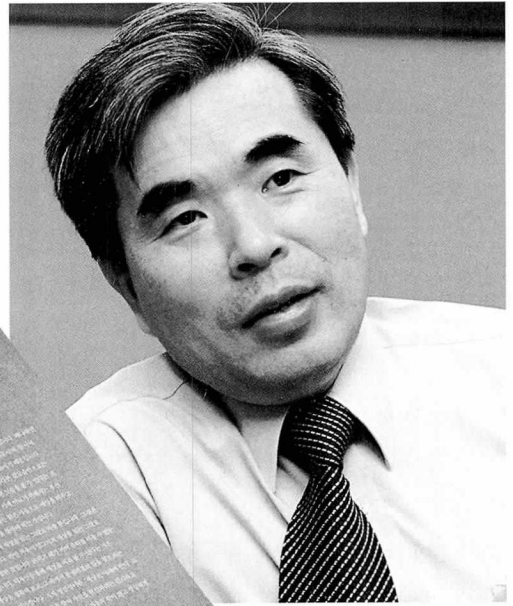
“서른여덟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시절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개인회사를 차려 일도 해봤지만, 새로움에 대한 갈증은 하루하루 깊이를 더해갈 뿐이었죠. 뭔가 남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세상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일을 찾고 싶었죠. 그래서 프랑스로 날아가 유리예술을 전공했습니다.”

서른여덟이면 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위치에서 있을 만한 나이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안락한 현재를 팽개치고, 불안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다. 실제로 그

“세상은 끝없이 새로운 가치와 아이덴티티를 원합니다. 디자인은 그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응용지식이죠.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혁신의 과정’ 이자, 인간의 삶과 문화를 생생하게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가 유학했던 시절 대학동기이자 오랜 친구는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열고 외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그가 바로 서울대 동양학과 김병중 교수다. 그는 유학시절을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고 아름다웠던 시절로 꼽는다. 처음으로 순수예술을 접했던 시기였고, 조카뻘 되는 스무살 젊은 정신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새 머리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지금도 그가 ‘나이답지 않게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귀국 후 지금까지 그의 행보는 무척 다양한 듯 보인다. 하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은 디자인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과 디자인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로 모아진다. 이 책은 그가 월간 《디자인》 편집주간으로 일했던 5년 동안 《편집자의 글》에 소개한 글 가운데 독자들의 호응이 남달랐던 칼럼을 모은 것이다. 그가 이 책을 기획한 것도 디자인계의 현실과 교육의 문제점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짚



박인석씨

디자인하우스/A5변형/248면/8500원

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들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세상은 끝없이 새로운 가치와 아이덴티티를 원합니다. 디자인은 그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응용지식이죠.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혁신의 과정’ 이자, 인간의 삶과 문화를 생생하게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특히 혁신은 현실을 바탕으로 시작되는데, 그동안 디자인계는 현장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쉽고 재미있다. 우리 생활의 주변에서 소재를 찾아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도 친근하다. 하지만 그 낯익음 속엔 예외 없이 고정관념을 깨는 그만의 독특한 시선이 담겨 있다. 일반적인 교양서와 달리 책 속엔 주석들도 눈에 띈다. 칼럼 하나를 쓰기 위해 최소한 두세권의 책을 읽었다는 그의 꼼꼼함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또 이 책을 세상에 내보내기까지 2년여의 자정기간을 거쳤다. 책의 크기부터 종이의 질감, 가독성과 행간의 여백까지 고려해 가장 편안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서였다. 이쯤 되면 그의 이유 있는 느낌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지금 동화상을 이용한 독특한 책을 구상중이다. 책이라는 미디어를 다변화해 웹과 동영상을 통해 아이템별로 꾸밀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신을 거듭할지 궁금하다. —박옥순 기자

## 자연교감과 감성 우선하는 남도예술의 표정

《남도미술의 숨결》 펴낸 조인호씨

조인호씨(44, 광주비엔날레 기획홍보팀장)는 전위, 해체, 실험이 지배하는 현대 예술의 흐름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예술의 혼'을 찾아내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가 펴낸 《남도미술의 숨결》은 남도(광주·전남)가 고향인 그가 남도의 예술현장에서 남도 예술의 역사적 표정을 더듬고 음미한 책이다.

“작가와 작품의 대변자로서, 대중의 작품 이해를 돕는 해설자로서 임무에 충실하려 했습니다.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예술 본래의 바탕과 맥을 살피는데 주력했죠. 예술이란 세상과 그 너머까지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씨는 이 책에서 16세기 학포 양팽손에서 공재 윤두서, 소치와 남농으로 이어지는 호남남화의 계보를 훑고, 이런 호남남화의 전통이 현대까지 오는 동안 풀리고 응고되는 장면들을 연대기적으로 엮어서 보여준다. 이런 통시적 꼴을 갖추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직장에 묶이다보니 자료수합에 필요한 낮 시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록이 많지 않고 체계적 정리가 부족한 지역미술계의 실정을 감안해야 하거든요. 현장을 탐방하며 오랫동안 지역에서 살아온 초로나 관계자를 만나 구술을 모으는 것도 보람차지만 더디고 고된 일이었죠.”

조씨가 지역예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건 지난 1995년 TV 프로그램 작품 해설

“남화는 형식보다는 내용의 문제예요. 전통산수, 사군자, 십군자 등 정형화된 소재와 화면구성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체득해가는 자연 철리와 넉넉한 감성을 이어받아야죠.”

차 광주비엔날레에 거의 매일 드나들면서부터다. 원래 홍익대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10년간 대학 시간강사로 일했는데, 미술에 대한 논문과 질문들을 쓰면서도 항상 “좁은 틀에 갇혀 있다는 자괴감”을 버리지 못했다. 소재와 매체 형식에서 파격을 추구하는 광주 비엔날레와의 만남은 그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줬다.

“남도는 외래문화의 영향이나 서구식 근대화 및 산업화가 더뎠습니다. 대신 시대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문화적 뿌리를 지켜올 수 있었죠. 한국인의 자연주의 감성과 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호남남화나 인상파적인 서양화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남도 특유의 친숙한 표현형식으로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호남화단의 '지역적 표정'으로는 자연교감과 자연미를 우선하고, 이지적인 공간조형보다 감성적인 내적 반응을 따르며, 개별성보다는 공동체 상생의 문화를 지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호남 예술에 드리워진 일반적인 편견에 불만을 표한다.



조인호씨



다지리/A5신/336면/12,000원

“흔히들 허씨 삼대가 시서화로 농축시킨 문향(文鄕) 전통을 봉건적 상고주의로 몰아부칩니다. 하지만

봉건·보수에 대한 평가나 분류보다는 그것이 당대문화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통용됐는가를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겠죠.”

가령 관념산수로 비판할 게 아니라, “신(神)을 형사(形寫)의 밖에서 구득하는 정신”으로 인지하고, “초려삼간 지어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나누어 쓰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놓고 보리라”는 송순의 시귀 또한 자연과 무시로 호호하려는 물야교용적 세계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말이다. 이것들은 가슴속에서 권기(書卷氣)를 갖추고, 흉중일기(胸中逸氣)를 붓으로 다스려 내적 평정을 얻으려는 ‘은일처사’ 들의 ‘삶법’이었다. 조씨는 법식을 중요시하는 일부 전통론자들의 잘못된 계승방식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는다.

“남화는 형식보다는 내용의 문제예요. 정형화된 소재와 화면구성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체득해가는 자연 철리와 넉넉한 감성을 이어받아야죠.”

조씨는 현재 문화답사모임 ‘한피들’을 이끌고 있다. 매월 십여명의 동호인들과 승용차를 타고 또다른 시공속으로 다녀오는 것이 그가 가장 즐기는 일이다. 지역 예술에 대한 그의 애정은 지행합일인 셈이다. —감성민 기자

# ‘떠돌이와 떠남’을 통해 걸어올린 작가들의 치열한 삶

《예술가로 산다는 것》 펴낸 박영택 교수

미술평론가 박영택 교수(38, 경기대 미술학과)가 펴낸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제목 그대로 ‘예술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묻는 책이다. 이 물음은 인맥과 배경만을 중시하고, 이른바 ‘잘 팔리는’ 작가들만 내세우는 기존 화단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다. 그래서 그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10명의 작가들은 오직 작업에만 매달리며 “자신의 일 이외에는 완전히 무심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조차 극구 두려워하는 존재들”이다.

경주 산속 절간 옆의 허름한 농가에서 20년 넘게 “단 한 점이라도 작품다운 작품을 남기고 죽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판화지 위에 흑연가루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형상을 만들어내는 김근태씨(드로잉, 조각), 작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목수일로 생계를 꾸려가며 경기도 광주에서 가족사에 담긴 근원적 슬픔을 파고드는 김을씨(서양화), 청주의 시골 초등학교 빈 교실에서 자폐에 가까운 삶을 살며 구상과 추상의 이분법 구도를 비껴난 독특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김명숙씨(서양화), 살풍경한 갑판 위나 퀴퀴한 냄새 진동하는 선실의 어느 후미진 구석에서 그랬을 <파도> 연작을 보여주는 선원화가 청도 등 작가들의 삶과 작업실, 작품들을 들여다보면서 박교수는 이들과 끊임없이 삼투압을 일으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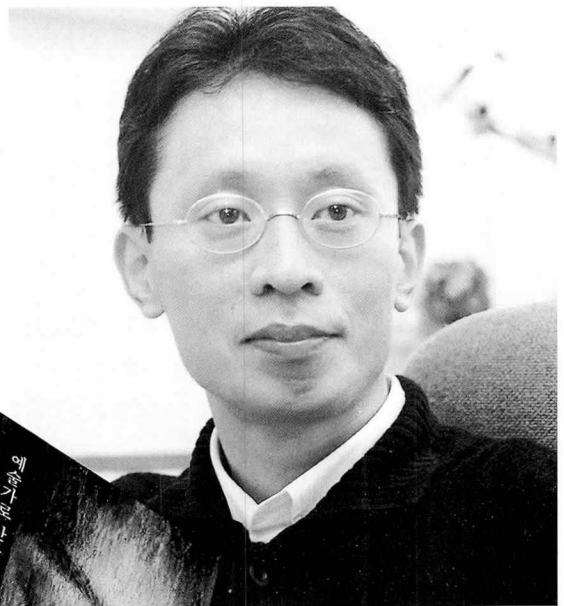
“작가가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지껄이는 존재라면 평론가는 좋은 작가와 작품에 대해 끊임없이 지껄이는 존재죠. ... 자신의 진정성에 몰두하는 작가를 찾아내고 북돋워주는 일이 바로 평론가로서 제가 할 몫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미처 알지 못했던 치열한 삶’을 자신의 내면에서 걸어올린다.

박교수는 이들의 삶과 작업을 ‘떠돌이와 떠남’이라는 말로 정리한다. ‘떠돌이와 떠남’은 인간의 삶과 예술의 보편적 원형이자, 그가 작가들의 ‘떠돌이와 떠남’을 좇아 그들의 작업실을 찾아다니는 여행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박교수가 이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금호미술관에서 10년 동안 큐레이터를 한 덕분이다. 그는 이미 화단에 확고하게 자리잡은 작가들의 전시를 기획하기보다는 숨어서 작업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좋은 작품을 발굴해 전시를 기획했다. 그러자니 당연히 작가들의 작업실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여행이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작업하는 것이 좋아서 이 먼 곳까지 내려와 궁핍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건 사실 그리 마음 편한 일”도 아닐 뿐더러 “그런 작가들의 삶에 비하면 나의 일상이나 인생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하며 게으른 것이냐 하는 자괴감이 어깨를 누름과 동시에 산



박영택 교수



마음산책/B5년형/208면/15,000원

다는 것에 대해 숙고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요즘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여행을 떠난다.

“작가가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지껄이는 존재라면 평론가는 좋은 작가와 작품에 대해 끊임없이 지껄이는 존재죠. 유행이나 시류에 길들여지지 않은 시각으로 자신의 진정성에 몰두하는 작가를 찾아내고 북돋워주는 일이 바로 평론가로서 제가 할 몫이에요.”

그는 그렇게 ‘지껄이기’ 위해서, 작가들을 찾아다니는 것뿐 아니라 작가들이 보내온 도록을 꼼꼼히 살피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모든 전시회를 훑고 다닌다.

박교수는 자신의 이런 여행을 운명이라고 말한다. 그가 미술교육학과에 진학해 화가로서의 꿈을 접고 큐레이터를 거쳐 미술평론가로 살고 있듯이, 그의 운명이 또 어떤 다른 삶으로 그를 이끌지 그 자신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미술평론가로서 현재의 운명에 충실하려고 한다.

제도권에 속한 그가 제도 바깥에 있는 작가들을 만나는 일은 자칫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작가들에게 스며들면서 제도와 비제도의 경계에 서고자 한다. 사실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가난과 궁핍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존재의 알몸을 내던지는 일이면서 현실과 비현실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있는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김장근기자

## 홀로 천천히 사계절 진미 음미하는 맛의 달인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지?》 퍼낸 고희욱씨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우리나라 음식, 외국 음식 가릴 것 없이 이젠 ‘느낌’으로 이야기한다. 소문난 집은 명성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사람들로 대기자 명단까지 뻗뻗하다.

맛있는 집 이야기를 쓰는 고희욱씨(35, 영화기획자)를 만나고 나서 음식을 잘 먹고 많이 먹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졌다. 많이 먹는 사람은 우선 키도 손도 크고 등도 널찍한 ‘큰 사람’ 일거라 생각했는데, 그는 우람하진 커녕 좀 작다 싶은 몸피다.

‘대식이 출신’이라는 그는 하루에 일곱끼를 먹던 ‘옛날’을 아련하게 이야기하지만, 쉽게 상상할 수 없다. 글을 위해서건 기니를 위해서건 다른 사람보다 늘 많이 먹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음식을 좋아하고 식욕이 왕성해요.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먹을 시간도 없고, 이젠 대한민국에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식욕이 좀 없어진 셈이죠.”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보았기에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는 것일까?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며 알게 된 집에 가서 조금씩만 얻어와도 일년 먹을거리

“제가 글을 통해 진정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음식문화와 맛 지키기, 요리사의 권익을 찾아주는 것이에요. 음식을 문화 속에서 이해하고, 진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요리사들이 예술가의 반열에 오르기를 기대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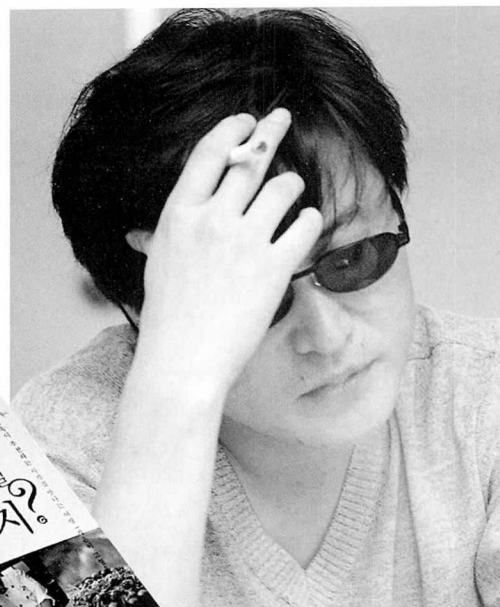
가 된다고 하니 그저 짐작할 따름이다.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잡지 다섯곳에 연재 중인 글과 별개로 새로 쓴 글들을 묶었다. 그 과정은 보통 노력이 아니었을 텐데, 분명 맛있게 먹은 음식 덕분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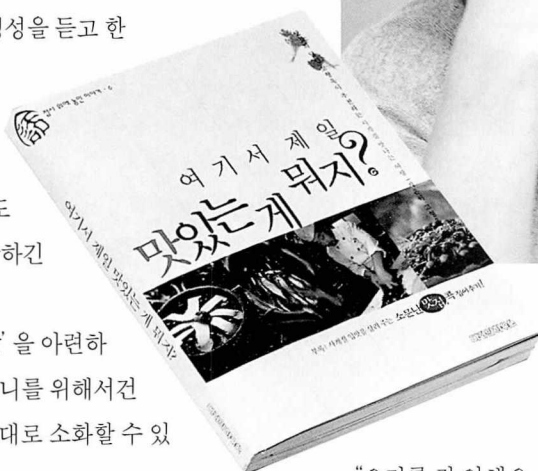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오면서, 본격적인 맛 탐험을 시작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매 끼니를 사먹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쌓인 맛에 대한 느낌과 생각이 표현 욕구를 불렀어요. 식도락동호회 활동이나 잡지 기고도 모두 그 결과죠.”

《고형욱의 맛있는 이야기》(롱셀러)에 이어 두번째 책인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지?》는 ‘일상에 들어왔든 사계절의 맛을 찾아 떠난’ 이야기다. 전국을 쏘다니며 건져 올린 계절의 진미를 생생한 사진과 자연, 사람 이야기에 엮어 풀어놓는다.

혼자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그는 자연도 음식도 온전히 홀로 느낀다. 덩어리로 받아들여 해석하고 해체하는 방식으로 맛을 느낀다.



고형욱씨



디자인하우스/B5변형/234면/9500원

“요리를 잘 안해요. 맛 이야기를 하는 작업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가는 제 방식은 부분인 재료를 배합해 전체인 음식을 만드는 요리와 정반대니까요.”

그가 하지 않는 게 또 한가지 있다. 바로 맨 얼굴을 드러내는 것. 혹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맛있는 집을 소개하는 일에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다. 그래서인지 사진기 앞에선 검은 안경으로 얼굴을 가렸다.

음식에 관한 많은 글을 쓰기 위해, 보통사람과 비교하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은 분명 고역일 것이다. 그런데도 열흘 동안 국수만 먹거나 하루에 고깃집 여섯곳을 순례하는 등 ‘기행’을 일삼으며 애써 글을 쓴다.

“음식 맛을 느끼는 것은 주관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객관이에요. 글을 쓸 때는 최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없애죠. 흥분하거나 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글은 표현은 풍부할지라도 무척 건조하죠. 제가 글을 통해 진정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음식문화와 맛 지키기, 요리사의 권익을 찾아주는 것이에요. 음식을 문화 속에서 이해하고, 진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요리사들이 예술가의 반열에 오르기를 기대하죠.” — 차정신 기자